

코오롱, 손실규모 무려 1515억원!

2004년 매출액 소폭증가에 경상적자 1083억원 ... 영업이익도 감소

코오롱이 원료가 상승, 환율 절상 등으로 2004년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은 자동차 소재, 정보통신(IT) 소재 투자효과로 2004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1조2899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23% 감소한 2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월15일 발표했다.

또한 경상적자도 813억원에서 1083억원으로, 당기순손실도 683억원에서 1515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코오롱은 유형자산감액손실과 지분법손실로 경상적자가 확대됐고 파업손실, 조기퇴직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특별손실 501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2005년에는 인력구조조정 완료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하고 하나은행 주식, 부동산 매각 등에 따라 차입금이 축소될 전망이어서 경영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2/17>